

NC 하트, KBO 역대 세번째 '투수 4관왕 짝'

평균자책점탈삼진 등 단독 선두 외국인 선수 최초로 4관왕 노려 구대성-윤석민 이어 세 번째 기대

카일 하트(31·NC 다이노스)가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외국인 선수 최초로 '투수 부문 4관왕'에 도전한다.



하트는 4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피안타 1실점 12탈삼진의 호투로 시즌 13승(2패)째를 따내며 원태인(13승 6패)을 따라잡고 다승 공동 선두로 나섰다.

평균자책점(2.31), 탈삼진(169개), 승률(0.867)은 단독 선두다.

다승 부문 경쟁은 워낙 치열하다. 평균자책점도 하트가 대량 실점을 하면, 덕 수송을 받아 정규시즌 등판이 어려운 제임스 네일(2.53·KIA 타이거즈)에게 밀릴 수 있다.

하지만 하트가 경쟁을 뛰어내면 KBO 외국인 투수 최초 기록을 쓸 수 있다.

2023년 NC 유니폼을 입고 정규시즌 최우수선수에 오른 에릭 페디(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지난해 평균자책점(2.00), 다승(20승), 탈삼진(209개) 부문 1위를 차지했지만 승률(0.769)에서는 5위에 머물렀다.

2019년 조시 린드블럼(당시 두산 베어스)은 다승(20승), 탈삼진(189개), 승률(0.870) 부문에서는 1위에 올랐으나 평균자책점은 2.50으로 2.29의 양현종(KIA)에게 타이틀을 내줬다.



NC 선발 하트가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NC파크에서 열린 2024 KBO 리그 두산 베어스 대 NC 다이노스 경기 1회 초에서 역투하고 있다.

더스틴 니퍼트(당시 두산)도 2016년 다승(22승)과 평균자책점(2.95), 승률(0.880) 1위에 올랐으나 탈삼진 부문에서는 7위(142개)

에 그쳤다.

KBO리그 역사에 남은 외국인 에이스들이 달성하지 못한 대기록에 하트가 도전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내 투수 중에서도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 1위를 독식한 건 타이거즈 소속이었던 선동열과 윤석민 단 두 명뿐이다.

선동열은 1989~1991년 3년 연속 다승,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률 4개 부문 1위에 올랐다. 윤석민은 2011년에 4개 타이틀을 차지했다.

다만 KBO리그가 탈삼진 1위를 시상하기 시작한 건 1993년이어서 선동열은 '공식 4관왕'이라고 부를 수 없다.

'투수 부문 최초 4관왕'은 구대성이다.

선발투수와 마무리 투수를 오갔던 구대성(당시 한화 이글스)은 1996년 다승, 평균자책점, 승률, 구원 부문 4개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당시 구대성은 '긴 이닝을 던지는 마무리'로 뛰며 규정이닝을 채워 평균자책점 타이틀까지 따냈다. 하트가 4개 부문 1위를 지키면 구대성, 윤석민에 이어 KBO리그 역대 세 번째 '투수 부문 공식 4관왕'으로 기록된다.

메시·호날두·SON 왜 빼? 발롱도르 후보 30인 발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 손흥민(토트넘), 김민재(원렌)가 나란히 세계 축구 최고 권위의 상으로 손꼽히는 '2024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발롱도르를 주관하는 프랑스풋볼은 5일(한국시간) 올해 부문별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역대 발롱도르 최다 수상(8회)에 빛나는 메시와 5차례 수상의 영광을 맛본 호날두가 나란히 명단에서 빠졌다. '메달두(메시+호날두)'가 발롱도르 30인 후보 명단에서 빠진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이다.



2023 발롱도르 수상자 리오넬 메시. EPA-연합뉴스

메시와 호날두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발롱도르를 양분(메시 5번·호날두 5번)하며 세계 최고의 라이벌로 인정받아왔다. 호날두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발롱도르를 받지 못한 가운데 메시는 지난해까지 3차례 더 수상하며 역대 최다 수상자로 우뚝 섰다.

하지만 메시와 호날두 모두 유럽 무대를 떠나 각각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떠나면서 유럽 선수에게 유리한 발롱도르와 인연이 멀어지게 됐다.

프랑스풋볼은 "메시와 호날두는 여전히 국가대표로 뛰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국제 대회에서 저조한 성과를 냈다"며 "호날두는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4)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성과를 냈다. 메시는 2024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했지만 후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계 페굴라, 1위 시비오테크 잡고 US오픈 준결승행

한국계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제시카 페굴라(6위·사진)가 세계 1위 이가 시비오테크(폴란드)를 물리치고 US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달러·약 1000억 원) 준결승에 올랐다.

페굴라는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의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여자 단식 8강전에서 시비오테크를 2-0(6-2 6-4)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페굴라는 생애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준결승에 진출했다.

페굴라는 이번 대회 전까지 6차례 메이저 대회 8강에 오르기도 한 번도 4강에 진출하지 못했는데, 징크스를 세계 1위를 맞아 시원하게 깨버렸다. 2022년 US오픈 8강전에서 시비오테크에게 당한 패배도 2년 만에 설욕했다.

시비오테크와 상대 전적에서는 4승 6패

로 격차를 좁혔다. 페굴라의 열세가 점쳐진 경기였지만 승부의 흐름은 정반대로 흘렀다. 시비오테크는 "서브가 왜 안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낙담했다. 페굴라는 "초반에 시비오테크를 몰아붙여 좌절시켰다"면서 "2세트에 시비오테크의 경기력이 올라올 때도 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페굴라는 어머니(킴 페굴라)가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계 선수다. 부모가 미국프로풋볼(NFL) 버펄로 빌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버펄로 세이버스 구단주인 '덤 수저'이기도 하다. 이날 여자 단식 4강 대진이 확정됐다. 페굴라는 베아트리스 아다르트 마이아(21위·브라질)를 2-0(6-1 6-4)으로

물리치고 올라온 카롤리나 무호바(52위·체코)와 결승 진출을 다룬다.

대진표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에마 나바로(12위)와 세계 2위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가 격돌한다.



Volvik
CONDOOR
TOUR PERFORMANCE PREMIUM URETHANE BALL